

농산업 인재 양성 두 팔 걷고 나선다

전주농협 - 전주생명과학고, 교류협약 조인식 가져... 생산제품 판로 제공·농축산물 소비촉진 협력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종규)는 2일 전주농협 회의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조인을 했다.

협약 체결은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할 우수 인재양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협과 교육부 및 농식품부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협약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기회 확대, 농업·농촌 지속발전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협력, 전주생명과학고 생산제품 판로 제공 및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분야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중기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은 "양 기관의 협약체결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우수 농업인재 양성과 농·생명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전기가 되기를



전주농협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2일 전주농협 회의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조인을 했다.

희망하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주생명과학고 김종규 교장은 "농생명산업 발전에 대한 농협의 관심에 감사하며, 협약 체결에 대해 학생들도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형식에 그

치지 않고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건실한 농업인재 양성 및 건강한 농촌 육성을 위해 농협과 농업계 학교가 손을 맞잡았으니 농촌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농협협동조합/담당 기획총무부 팀장 배범모(230-6711), 전주농협 기획총무부(287-8111)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고산농협, 소비자문제 해소 농업인 이동상담실 개최

전북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최근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를 위해 관내 여성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건강·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에서 이동하여 강의 및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현장위주의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운하 고 객지원과장과 대한노래강사협회 조진호 강사 등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개별 상담시간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영석 조합장은 "농업인들이 실제 상황에 꼭 맞는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기회가 없었는데 이동상담실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군산지사, 신축 사옥에서 최상의 전력서비스 개시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이철호, 위원장 이수길)는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 김관영 국회의원, 김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및 유관 기관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사 신축 사옥 입주식을 가졌다.

신축 사옥은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까지 21개월여 간의 공사기간으로 대지면적 8,586㎡, 연면적 4,32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됐다.

또한, 근대 역사 경관 지구 조화형

외관을 비롯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 제어가 가능한 SMART 빌딩 시스템을 갖췄으며,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및 녹색 건축물 우수 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지열과 태양광 및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이 35% 이르며, 빗물 저장 후 조정 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우수 활용 설비(167톤)를 갖춘 친환경 첨단 건축물로 건립됐다.

한전은 신축 사옥 입주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한 내·외빈들은 군산지사의 안정적 전력서비스 공급을 응원하고 새만금의 중심인 군산에서, 한전 군산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직원들에게 "군산지사가 지역의 경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13만 8천호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으로 계속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우리아이 최고' 정기적금 특판 연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우리아이 최고! 정기적금 특판'을 1000억원 한도(계약액 기준)내에서 12월 31일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아이 최고' 정기적금은 아동수당을 전북은행으로 수령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1인 1계좌(아동명의) 가입 가능하며 불입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아동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기간이 달라진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아이 최고! 정기적금 특판'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아동수당 수급자가 가입하여 특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간단한 관리로 화재 예방 할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8월 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누전과 감전 등 농촌지역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컨설팅)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참여협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번 활동은 농촌진흥청 품목별 농업전문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해 영농작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과 전기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기시설이 설치된 시설하우스와 축사이며,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전 안전점검을 신청한 14개 시·군 27농가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확인, 전기설비 노후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살펴보고 전기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폭우와 침수 발생을 대비해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은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설치된 온도관리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시설 내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기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관리요령 등을 상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업시설물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여름철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전기안전사용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설치한 콘센트나 전기분전반에 쌓인 먼지 제거와 같은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2일 농협지역본부에서 진안군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조합장'으로 선정, 시상했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 이달의 우수조합장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일 농협지역본부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진안군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조합장'으로 선정되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백운농협은 지리적으로 삼진강 발원지이자 해발 300~700미터에 이르는 고랭지에 위치하고 농산물의 맛과 품질이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으며 100여 농가로 구성된 수확·시과 공선회는 연간 1,500톤을 생산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전량 출하하고 있다.

특히, 모종부터 수확까지 특성화된 현지교육으로 조합원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 기준 단위면적(200평)당 평균 4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지역사회의 확실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젊은 청년 조합원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활기차고 역동적인 백운농협 재탄생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빈 조합장은 2018년 4월 인근 성수농협과 합병추진으로 경영의 규모화 및 효율성 증대로 2018년말 농축협 종합경영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경영 정상화에 기여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cs.or.kr *전자우편 : jvcs@hanmail.net